

월간 실적보고

2016.08

Summary of 2016 Aug

1.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**26.4%** 성장
 -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(입장권, Pass 등)을 합산한 수치
2. 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**18.2%** 성장
 - 패키지 **10.1%** / 티켓 **30.6%** YOY 성장 (12만명 / 9.3만명)
3. 미주 **64.6%** , 중국 **28.5%** , 남태평양 **23.5%** , 동남아 **15.2%**
 - 장거리 : 미주 **7**개월, 남태평양 **6**개월 연속 **두 자릿수** 성장률
 - 단거리 : 중국, 동남아 **3**개월 연속 **두 자릿수** 성장률

8월 Review :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성장률 26.4%

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성장 18.2%, 송출인원 21.3만명. 역대 세 번째로 월간 해외 총 송객인원 21만명 상회.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 지속.

패키지 성장률 10.1%, 송객인원 12만.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. 전년보다 긴 추석연휴로 인해 모객이 9월로 분산 되었음에도 두 자릿수 성장. 일부 부진한 지역은 회복세 지속, 이외 지역은 두 자릿수 성장.

티켓 성장률 30.6%, 송객인원 9.3만. 전년 동기의 74% 성장률 기고에도 30% 이상 성장.

8월 실적

(단위 : 명, %)

	패키지	티켓	총 송객인원
2016	120,224	93,122	213,346
2015	109,205	71,309	180,514
YOY	10.1%	30.6%	18.2%

패키지 YoY : 6월 20.7% → 7월 21.2% → 8월 10.1%

티켓 YoY : 6월 58.3% → 7월 48.9% → 8월 30.6%

총송객 YoY : 6월 35.6% → 7월 32.4% → 8월 18.2%

지역별 성장

8월 지역별 인원 성장률 **미주 64.6%** , **중국 28.5%** , **남태평양 23.5%** , **동남아 15.2%**

미주 +64.6%, 7월에 이어, 전 지역 중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. 여름 성수기 두 달 연속 약 70% 이상 성장.

남태평양 +23.5%, 3월부터 7개월 동안 평균 26% 성장. 유럽 -1.1% 성장으로 회복세 완연.

장거리 지역 중 미주와 남태평양이 6개월 이상 높은 성장 지속하며 테러 여파로 인한 유럽의 부진 만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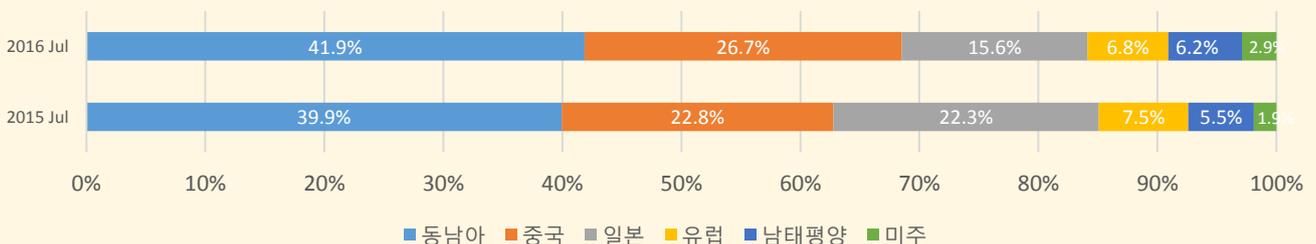
중국 +28.5%, 5개월 연속 월 3만명 이상의 송출객수 달성. 전년 7월, 8월 합산 송출객 대비 40% 증가.

동남아 +15.2%, 상반기 평균 성장률 5%의 부진 탈피하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.

단거리 지역 중 일본 -22.9%의 부진은 다른 단거리 지역인 중국, 동남아가 꾸준한 성장으로 만회.

8월의 여행수요는 추석 연휴로 인해 9월로 다소 분산되었지만, 대부분의 지역이 두 자릿수 성장하며, 7월의 좋은 분위기 지속.

인원 비중



예약률 증감 (PKG)

(단위 : 명, %)

	16년 9월	16년 10월	16년 11월
증감률	38.5%	15.1%	13.1%

* 2016.8.3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

9월은 전년보다 늘어난 추석연휴로 인해 높은 예약률 지속. 3분기 실적에 긍정적 기여 예상.

4분기인 10월, 11월 모두 두 자릿수 예약률. 전년 4분기 평균 성장률 23.2% 였던 것을 감안하면 준수한 성장성. (전년 3분기 평균 성장률 16%) 부진했던 일본, 유럽의 회복이 4분기에 나타나면 예약률 개선 가능.